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일자리 “돌봄 받던 내가 동료 돕는다”



광주다움 통합돌봄
‘K복지’ 브랜드 되다

〈5〉세대맞춤 선순환 복지모델 가동

광주시가 ‘권리 보장·이동 지원·생애 전환’으로 이어지는 세대별 맞춤형 복지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장애인의 사회 참여(권리)에서 시작해 어르신의 이동권(이동)을 보장하고, 중장년층의 경력 전환(전환)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다.

‘일할 권리가 없으면 이동이 멈추고, 이동이 막히면 다음 단계로의 전환이 끊긴다’는 문제의식 아래, 세대별 병목 현상을 해소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광주시 동구 비전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선임 동료상담가로 활동하는 장수만(48)씨는 뇌병변장애(중증)인이다.

그의 주된 업무는 비슷한 고민을 가진 장애인들의 자립을 돕는 것이다.

동료상담은 장애 당사자가 상담가로 활동하며 같은 고민을 겪는 내담자에게 대등한 위치에서 정서적 지지와 정보 제공을 병행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이 센터 상담 실적은 216건, 올해는 상담가 3명이 활동 중이다.

장애인 사회 참여·어르신 이동권 보장·중장년층 경력 전환 구조

동료상담·직무탐색·현장훈련…삶의 경로 연결 사회안전망 완성

장씨는 “주로 취업 상담이 많다”며 “정보를 몰라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장애인고용공단 등을 연계해 드린다”고 말했다.

그가 공단에 연계해 도움을 준 상담자는 지난 4월부터 전대병원에서 의료 보조 일을 하고 있다. 장씨는 “취업했다는 소식이 들려올 때 가장 뿌듯하다”고 전했다.

장씨는 광주시 중점 추진하는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일자리’ 정책 덕분에 일자리를 얻었다.

시는 노동 참여가 제한됐던 중증장애인에게 권익 옹호, 문화예술, 인식개선 강사 활동 등의 직무를 제공한다.

2024년 2개소 12명이었던 사업 규모는 2025년 5개소 25명(전담인력 5명 별도)으로 대폭 확대됐다. 참여자들은 주 15시간 근무하며 월 79만원의 급여를 받는다. 다만 현장에서는 1년 단위 계약과 하루 3시간 근무(월 79시간)로 인한 고용 불안과 급여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

비전센터 정다은(32) 사무국장은 “급여가 120만 원에 못 미쳐 생계급여 수급자는 수급비가 깎이고, 탈락은 안 되는 애매한 구간”이라며 “차라리 하루 6시간 이상 근무로 경제활동 자부심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애인의 ‘권리’가 일자리로 보장됐다면, 다음 단계는 자유로운 ‘이동’이다.

광주시는 지난해 12월 13일 광역지자체 최초로 ‘어르신 콜택시’를 도입해 디지털 약자의 이동권 보장에 나섰다.

사업자로는 광주빛고을콜택시가 선정돼 전용회선을 운영 중이다. 전용번호(062-525-5555)로 전화해 출발지와 도착지만 전달하면 광주빛고을콜택시가 배차하는 방식이다. 호출료는 무료지만 택시 요금 5300원 미만일 경우 최대 1000원이 발생한다.

운영 103일(2024년 12월 14일~2025년 3월 26일) 동안 접수 7015건 중 5638건이 성공해 배차 성공률 80.37%를 기록했다. 일평균 콜 수는 약 68건이다.

확보된 이동권은 중장년층의 ‘생애 전환’으로 이어진다. 인생 전환기를 맞은 중장년(만 45~64세)을 위해서는 빛고을50+센터가 생애 재설계 상담부터 전환 교육, 일자리 연계까지 원스톱 지원을 펼치고 있다. 주요 사업은 50+생애 재설계 상담, 정보 제공, 전문가관 연계, 생애전환 교육 등이다.

센터는 단순 교육을 넘어 상담, 일자리 연계, 커뮤니티 활동을 포괄 지원한다. 2024년 한 해 동안 제공한 서비스는 총 2만 314건에 달한다.



광주시 비전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정다은 사무국장(왼쪽)과 장수만 선임동료상담가가 중증장애인 동료상담 활동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이 중 전문 상담이 3691건, 일자리 등 프로그램 참여자가 1만 540명이었으며, 온라인 ‘50+포털’ 접속 건수도 20만 4161회를 기록했다.

일자리 지원은 유관 취업기관과 협업체 매월 ‘상담의 날’을 통해 직접 알선 및 취업코칭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한 수료생은 “공직 퇴직 후 6개월~1년이 지났던 공허함을 느끼는데, 센터를 통해 같은 처지의 중장

년을 만나고 공공 일자리를 찾으며 가치와 행복을 느꼈다”고 전했다.

광주시의 복지 정책은 이처럼 세대별로 단절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권리’에서 ‘이동’으로, 다시 ‘전환’으로 이어지는 삶의 경로를 촘촘하게 연결하며 사회안전망을 완성해가고 있다.〈끝〉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남진희 인턴기자njhinhee324@naver.com

자립청년서 취업선수로…꿈 향해 뛰는 형제

‘전국장애인체전 한전KPS 새 희망 농구 강명수·사이클 강희수 형제

전남장애인재활협회 권유로 선수 활동…생계·훈련 불안 덜어

제4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형제’가 꿈을 향한 질주를 선보였다.

한전KPS 소속인 ‘형’ 강명수(26)는 남자 지적농구 IDD(동호인부) 16강에서 분전했고, ‘동생’ 강희수(25)는 사이클 남자 개인도로 31km 개인도로독주 11km IDD(동호인부)에서 은메달을 수확했다.

전남 농구 대표로 뛰는 강명수는 지난 1일 남자 지적농구 IDD(동호인부) 16강전에 출전해 코트를 누볐다. 결과는 55-74패배였지만 최선을 다한 도전으로 박수를 받았다.

그는 “16강 총만만 이기자고 했는데, 지게 돼 많이 속상했다. 경기 끝나자마자 숙소로 돌아와 많이 울었다”고 털어놨다.

나주 금전중 시절 농구선수로 뛰었던 그는 지난 2024년 취업선수로서 전남 지적농구팀에 합류해 센터로 활동 중이다.

강명수는 한전KPS 소속 취업선수가 되면서 생계와 훈련 사이의 불안을 덜었다. 고정 수입과 복지가 확보돼 훈련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

런됐다.

그는 “농구팀 송은혜 코치님께 꼭 1승을 안겨 드리고 싶다. 내년 체전에서는 4강에 오를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연습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동생 강희수는 사이클 선수 5년 차로, 이번 대회에서 잇따라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그는 “개인도로 31km에서 막판 200m를 남기고 다리가 무치며 5초 차로 금메달을 놓쳤다. 눈앞에서 빼앗겨 너무 아쉬웠고 ‘좀 더 열심히 할걸’ 하는 후회도 들었다”고 아쉬운 소감을 말했다.

형제의 꿈은 성장 서사와 맞닿아 있다.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초등학교 6학년 무렵 나주 금성원에서 자란 형제는 만 20세가 되면서 ‘자립청년’으로 사회로 나섰다.

형이 먼저 시설을 떠나 여수·순천·대전 등지에서 생활했고, 1년 뒤 사회로 나온 동생 희수는 전남장애인재활협회 흥정인 국장의 권유로 사이클 선수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시설에서 지내던 동생은 형을 그리워하며 애타는 시간을 보냈다. 흥 국장의 도움을 받



사이클 선수 동생 강희수(왼쪽)과 농구 선수 형 강명수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아 전남자립센터를 통해 형의 소식을 확인한 동생은 센터 내 1박 2일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재회했다. 스무 살에 헤어졌던 두 사람의 만남은 4년 만이었다.

재회 과정에서 형의 코트 ‘복귀’가 결정됐다. 두 선수는 “우리를 만나게 해주신 흥정인 국장님, 목포 인성학교 정현수·송은혜 코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적장애가 있어도 포기하지 말고 자기 꿈을 끝까지 찾아가길 바랍니다”고 입을 모았다. /글·사진·박연수 training@kwangju.co.kr

광주시, 전남도에 ‘특별광역연합’ 책임있는 결단 촉구

“연합체는 지방소멸 대응 전략…절차지연으로 기회 놓칠수 없어”

광주시가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의 연내 출범을 위해 전남도에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했다. 수도권 일극체제와 지역소멸 위기에 맞선 호남권 도약의 해법이 초광역 협력에 있다는 판단으로, 절차 지연 시 호남 전체의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점에서다.

4일 광주시는 입장문을 통해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은 이재명 정부 ‘5극3축’ 국가균형 전략의 기조와 맞닿아 있으며, 호남권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여는 시대적 과제”라고 밝혔다.

광주시의회가 10월 24일 특별광역연합 규약안을 의결하며 시는 설립 절차를 성실히 밟아왔고, 이제 전남도가 도의회 상정 등 첫 관문을 통과시키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광주시는 소지역주의에 발목 잡힌 논쟁으로 출범을 미루는 것은 호남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선택이라고 지적했다.

초광역경제권을 형성해 광주·전남의 산업·일자리·인프라 정책을 하나의 축으로 묶을 때 파급력이 극대화되는 만큼, “유연하고 혁신적인 사고로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면에 세웠다.

전남도의 역할론도 분명히 했다.

시는 “전남도가 아직 도의회 상정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더 이상의 절차적 지연 없이 법적·행정적 이행을 서둘러 달라”고 요청했다.

규약 동의와 관련 부대 절차가 조속히 완료돼야

연내 출범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연합 출범을 호남 민의가 요구하는 ‘상생의 첫 모델’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시는 “특별광역연합은 지자체가 공동의사결정기구를 만들어 권역 단위로 교통망, 산업전환, 연구개발, 인재양성, 관광·문화 등 대형 과제를 함께 기획·집행하는 초광역 거버넌스다.

개별 시·도 예산과 권한으로는 만들기 어려운 ‘규모의 경제’를 확보해 투자 효율과 집행 속도를 높이고, 수도권 집중 완화라는 국가균형발전의 실행 단위가 된다.

광주·전남의 경우 광역철도·도로, 항만·공항 연계 물류, RE100 기반 에너지·제조 전환, 영상강수계 통합관리, AI·디지털 인프라와 인제 생태계 조성 같은 의제가 연합 틀에서 추진될 때 효과가 커진다는 평가다.

광주시는 지난날 24일 시의회 규약안 의결로 내부 절차를 마쳤다. 전남도는 도의회 상정 전 단계로, 규약 동의와 설립준비·사무국 구성, 공동 자원·사업 로드맵 확정이 연내 병행돼야 출범이 가능하다.

이후 양 시·도 합의와 중앙협의를 통해 초기 공동 의제(교통·에너지·산업전환 등)와 자원 조달 방식이 확정되고, 국비 공모·초광역 지원 프로그램과의 연계로 실행력을 높여게 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특별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 망 전남주(730826-1XXXXXX)
 - 피상속인 망 전남주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특별상속한정승인을 청구하였는데 2025년 10월 29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채권자 및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기간내에 채권신고와 함께 하기 바라며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 상속인 : 1. 전혜선(800225-2XXXXXX) 광주 남구 서문대로654번길 24, 202동 1101호 (전월동, 삼익세라비24아파트) 2. 이호원(870827-1XXXXXX) 양주시 광적면 가래비4길 9-16, 에이동 101호 (스카이비) 3. 이훈(910828-1XXXXXX) 양주시 광적면 가래비4길 9-16, 에이동 101호 (스카이비) 4. 이현(930819-1XXXXXX) 남양주시 대동1로 30, 1501동 12층 1205호 (별내동, 별내아파트2차) • 신고기간 : 2025. 11. 5. ~ 2026. 1. 9. • 채권신고장소 : 상속인 1. 전혜선의 주소

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 망 김병순(670120-1XXXXXX)
 - 최후주소 : 전남 해남군 해남읍 남동길 7-4 (남동리)
 - 등록기준지 : 전라남도 해남군 송지면 서정리 364
- 피상속인 망 김병순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청구하였는데 2025년 10월 29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채권자 및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기간내에 채권신고와 함께 하기 바라며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 상속인 : 1. 김승우(920608-2XXXXXX) 전남 해남군 해남읍 구교3길 36-23, 103동 203호(구교리, 해남파크사이드아파트) 2. 김준우(900522-3XXXXXX) 전남 해남군 해남읍 구교3길 36-23, 102동 604호(구교리, 해남파크사이드아파트) • 신고기간 : 2025. 11. 5. ~ 2026. 1. 9. • 채권신고장소 : 상속인 1. 김승우의 주소

못 받은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7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 가 직접 관리합니다.

선 수 금**출장비용****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권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추수
- 분양대금 연체 등,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담

중앙신용정보

010-2785-0073

직통전화 062)521-4109

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 망 정찬준(660118-1XXXXXX)
 - 최후주소 : 전남 완도군 완도읍 대신1길 12 (대신리)
- 등록기준지 :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대신리 715번지
- 피상속인 망 정찬준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 2025년 10월 29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채권자 및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기간내에 채권신고와 함께 하기 바라며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 상속인 : 정세희(000705-4XXXXXX) 순천시 자경5길 34, 2동 802호 (조곡동, 금호아파트) • 신고기간 : 2025. 11. 5. ~ 2026. 1. 9. • 채권신고처 : 상속인 정세희의 주소

합병 및 이익제출 공고

농업회사법인 스마트팜 주식회사(갑)에서는 2025년 10월 30일, 농업회사법인 에스에프바다목장 주식회사(을)에서는 동년 10월 30일 각 주주총회의 결의로 (갑)(을)을 합병하여 그 권리와무를 승계하고 (을)은 해산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합병에 의의가 있는 해산자는 본 공고 게재일 익일부터 1개월 내에 관계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여 주식이 바라며, 위 기간내에 이의가 없으면 합병등기에 이의없이 승인한 것으로 간주함을 공고함.

2025년 11월 5일

“갑” 농업회사법인 스마트팜 주식회사
전라남도 신안군 안좌면 안좌남부길 530-94
대표이사 김 창 희

“을” 농업회사법인 에스에프바다목장 주식회사
전라남도 신안군 암해읍 암해로 859
대표이사 양 대 성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73년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광고문의 227-9600 신문구독 220-0551 예약구독 220-0550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